

‘중독의 늪’ 사이버 불법도박 폐해 심각

사법기관 수사망 피해 외국에 서버 두고 운영 대부분 대표통장 이용... 피해금액 환수 어려워

은밀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오프라인 도박과는 달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박의 늪에 빠져드는 ‘사이버 불법도박’이 독버섯처럼 번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그 동안 온라인을 이용한 사이버도박은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범법을 교묘히 피해 사회 곳곳에 깊숙히 파고 들어 직장인과 주부·학생·심지어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유혹의 손길로 다가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불법 도박시장 규모는 매년 팽창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대책은 턱없이 미흡해 사이버 불법도박을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수백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대표통장을 유통한 공급자를 대거 적발해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달아난 14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4곳을 개설해 운영하며 대표통장으로 도박자금

30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에선 150억원대 해의 사이버도박장을 개설한 국내총책 등이 경찰에 들미가 잡혔다. 경찰에 붙잡힌 총책 등 일당 3명은 중국 청도에 인터넷서버를 두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 2016년부터 1년 4개월 동안 1,000여명에게 1만5,000여차례에 걸쳐 148억원 상당을 송금받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던 중에도 사이버 도박장을 새롭게 개설·운영하다 추적 중인 경찰에 잡혀왔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도박이 사회 깊숙히 파고들자 검·경 등 수사기관은 특별단속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

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상 도박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도박사이트 근거지가 해외인 경우가 많고,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면 도박장 개설자들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 대행사를 외국법인으로 두면 물증확보가 어렵는데 사이트운영자 대부분이 차명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하기 때문에 계좌추적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수사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사이버 도박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적발시 처벌이 두려워 돈을 잃어도 신고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의 심리적 압박이 수사방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불법도박으로 얻은 수익 역시 대포통

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발해도 정확한 수익금을 파악하기 어렵고, 완벽한 환수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일각에선 금융실명제 보완과 영수증 의무화 등 인터넷 도박에 대한 양성화 방안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지만, 시민단체 및 여론의 비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이 역시 수월치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도박사이트 상당수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위해 외국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인터넷 모니터링 전문수사관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고 운영자에 대한 단속도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	19~29	순천	19~28	광양	19~28
나주	18~29	목포	19~26	여수	19~26

일출 05:18 일몰 19:50
월출 21:29 월몰 06:44

장성	17~29	흑산도	18~24
담양	18~29	구례	18~30
화순	18~29	곡성	17~29
영광	18~28	완도	18~26
함평	18~28	강진	18~28
무안	18~27	장흥	17~28
영암	17~28	해남	17~27
진도	18~26	고흥	17~27
신안	18~26	보성	16~27

목포	만조 03:38 15:26	여수	만조 10:07 22:49
	간조 08:48 20:42		간조 04:17 16:04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경찰, 수영대회 ‘경비단’ 발족

단장에 양성진 광주청 2부장...안전대회 다짐

광주경찰청은 18일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특공대·경찰전담부대·교통전담부대 등 전담경비단과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조영택 수영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기관·단체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전담경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광주청 양성진 2부장을 ‘2019광주세계수

영선수권대회 경찰 전담경비단장’으로 공식 임명했다.

전담경비단은 경찰특공대·경찰전담부대·교통전담부대 등으로 나누어 구성됐다. 경찰 전담경비단은 다음달 5일부터 선수촌·본부호텔·주요 경기장 등 대회시설에 배치되며, 교통관리·테러대응·경찰서비스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활한 대회운영을 지원한다. /고광민 기자



광주수영대회 성공 기원

18일 오전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광주체육인 한마음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성공개최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 “경비단 핵심역할은 테러 예방”

“광주세계수영대회에서 경찰의 핵심 활동은 테러 예방과 안전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8일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광주수영대회 ‘경찰 전담경비단’ 발대식에서 안전과 질서를 최우선으로 당부했다.

민 청장은 “역대 가장 많은 선수단이 참가하고 파견된 만큼 경찰이 앞장서 대회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경기장 주변은 물론 선수촌과 관람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에선 경찰 테러협력 대응팀이 꾸려져 운영된다”며 “관계기



관과 유기적인 협조 속에 실질적인 안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안전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각 선수단과 시민들의 교통안전 및 불편이 없도록 경기장 주변 교통질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며 “한국의 수준 높은 치안질서 및 서비스 등에 경찰이 몫을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광민 기자

친구 집단폭행 사망 10대 4명 송치

경찰, ‘살인’ 혐의 적용...물고문 정황까지

경찰이 도태를 상습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친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군(18) 등 4명에게 살인·공갈·공갈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9월 새벽 1시부터 북구 한 원룸에서 B군(18)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다. 또 B

군의 아르바이트 월급 75만원을 갈취하고, 원룸 월세보증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남·북지역 고교 동창회는 동네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청소년 등으로 B군을 상습 폭행해왔다. 광주의 한 직업학교에서 만나 알게 된 B군에게 동거를 제안한 뒤, 청소·빨래·심부름 등을 시키는 등 사실상 노예처럼 부려먹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달 초 B군에게 가족 관련 패륜적 육설을 강요한 뒤 세면대에서 물고문을 했고, ‘돈을 빌려오거나 주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다.

온 몸이 붓고 멍든 B군의 모습을 5차례에 걸쳐 사진·동영상으로 찍어 공유했고, 동영상 촬영 당시에는 일종의 노래가사를 만들어 부르며 희화화·조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세 차례 경찰조사에서 ‘폭행 과정에 B군이 사망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B군이 말을 듣지 않아 재미삼아 괴롭혀왔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B군이 사망하자 이불을 덮어 두고 전북 순장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이나라 기자

광양서 승합차-경차 충돌...4명 사상

광양에서 승합차와 경차가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18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후 7시 20분께 광양시 광영동 모 주유소 주변 삼거리(평도 4차선 도로)에서 A씨(67·여)가 몰던 모닝 차량과 B씨(30)가 운전하던 스타렉스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남편(72)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B씨와 B씨의 딸(2)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스타렉스와 모닝 차량은 각각 직진·좌회전하던 중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한 것으로 보고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정성명 기자

‘왜 쪼려봐’ 행인 폭행 불법체류자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새벽이 밝은 행인에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수폭행)로 중국인 A씨(23)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5시 5분께 서구 한 술집 앞 인도에서 행인 이 모씨(31)의 팔을 알루미늄 봉을 휘둘러 때린 혐의다.

조사결과 만취한 A씨는 ‘이제 일행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승강기를 하다 격분, 주변에 있던 광고판 지지대를 들고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일만연수비자로 입국한 뒤 같은 해 9월 체류기간이 만료돼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방침이다. /김종찬 기자

누워만 있어도 노폐물이 펑펑!

100% 자연열! 편백효소 찜질!

“면역력은 쭉~욱! 노폐물 짜~악! 다이어트와 힐링을 한번에!”

편백나라 효소공

예약문의 062) 372-5888
광주 서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건너편 동양사우나 2층

각 방송국에서 절찬 소개된 편백효소찜질의 효과

체온도 올리면 자연면역치유력이 5배증가한다?
미생물의 자연열에 의한 1.체온상승에 의한 면역력 증진 효과
2.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 배독효과 3. 혈액순환을 원활하게하는 기혈작용
4. 전신의 활자리를 자극하는 뜸효과

편백나라 효소공 5코스

1. 편백효소욕(15분)
2. 기계마사지(15분)
3. 편백 적외선 반신 욕(20분)
4. 파라핀, 족욕
5. 허브찜질

편백나라 효소공! 대한민국 대표 힐링 명소 “웰니스25”선정

“웰니스25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추천하는 대한민국 대표 힐링명소. 25곳 선정 주관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체인·가맹점문의

※ 광주지점 : 남구, 북구, 광산구, 동구 각 1개소
※ 전남·북지점 : 여수, 광양, 담양, 화순, 나주, 목포, 영광, 전주 각 1개소 150평이상 사업면적

문의전화 010-9282-8088